

19세기 중엽, 『죽도잡지』로 보는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인식

최 장 근*

(e-mail : nihonbu@daeg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면서 | 4.2 일인의 조선인 조우 |
| 2. 『죽도잡지』의 집필동기 | 4.3 울릉도 도항금지령 |
| 2.1 죽도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 | 4.4 울릉도 도항 탄원과 섬 조사 |
| 2.2 집필동기와 내용의 신뢰도 | 5. 울릉도와 풍토와 산물 |
| 3. 섬의 명칭과 가치, 지리적 위치 | 5.1 울릉도의 풍토 |
| 4. 일인의 울릉도 도해와 도항금지 | 5.2 울릉도의 산물 |
| 4.1 두 가문의 도해면허 취득경위 | 6. 맺으면서 |

키워드 : 独島(Dokdo), 竹島(Takeshima), 竹島雜誌(Jukdo Magazine), 鬱陵島産物(Ulleung products), 鬱陵島風土(Ulleung climate), 鬱陵島渡航(Ulleung crossing)

1. 들어가면서

일본정부는 독도를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¹⁾ 사실상 17세기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서 관리했다고 본격적으로 다룬 기록은 없다.²⁾ 다만 17세기 일본의 어부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이 조선이 쇠퇴정착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비워서 관리하고 있을 때에 70여 년간 몰래 울릉도에 왕래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전문

- 1) 「다케시마문제」,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ssue.html> (검색일:2015년12월1일).
- 2) 송휘영 엮음(2013) 『일본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적 연원』 지성인, pp.161-205. 다케우치 다케시는 인용복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 2섬에 대해 조선조정이 영토로서 인식했다는 인식이다(다케우치 다케시 저, 송휘영, 김수희 역(2013)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선인, p.19). 이런 인식은 内藤正中·金柄烈(2007) 『歴史的檢証獨島·竹島』岩波書店, pp.8-61.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争—歴史から考える—』新幹社, pp.53-79.에도 있다.

했다는 기록이 있다.³⁾ 안용복 일행과 2번에 걸쳐 쟁계가 있었다.⁴⁾ 본고에서 다루는 『죽도잡지(竹島雜誌)』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몇몇 안 되는 초기 자료 중의 하나이다.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은 이 「죽도잡지」가 울릉도를 소개하는 기록이지만, 울릉도에는 반드시 독도를 거쳐 가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고 하는 증거자료로 삼고 있다.⁵⁾ 이 「죽도잡지」의 어떠한 부분의 어떠한 내용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 이 「죽도잡지」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실제로 17세기를 전후하여 울릉도의 지리나 환경 등에 관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본 「죽도잡지」는 당시 울릉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연구방법으로는 「죽도잡지」에 싣고 있는 울릉도, 독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해석하여 당시 일본의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산물과 영토 인식에 관해 고증하려고 한다.

사실 「죽도잡지」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일본영토론자들은 17세기 일본이 독도의 영토주권을 확립했다는 증거자료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 「죽도잡지」의 연구는 독도연구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

2. 『죽도잡지』의 집필동기

2.1 죽도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

『죽도잡지(竹島雜誌)』⁶⁾는 1871년 10월에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가

- 3) 관련연구서로서,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古今書院, pp.139-193. 下條正男(2005) 『‘竹島’ 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縣民會議, pp. 33-39,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pp.43-92. 등이 있다. 1차 자료로서 1차와 2차 도일에 관해 상세히 기록한 문헌(권오엽 편주(2010) 『일본고문서의 독도, 控帳』책사랑, pp.68-229.)이 있다.
- 4) 1차도일 때는 조선 측은 40명 정도가 울릉도에 도항했는데 2명이 무장한 일본 측에 납치당했다. 경상북도편(2013) 『죽도기사(1)』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1, p. 39.오오니시 도시테로, 권경 역(2011) 『독도개관』인문사, pp.421-442.
- 5) 일본이 17세기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하는 근거로 울릉도 도항을 증거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막부가 영토인식이 결여되어 울릉도는 조선에 주었지만, 독도는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6) 본서의 죽도는 ‘다케시마’라고 읽으며, 지금의 ‘울릉도’를 가리킨다. 일본사람들이 말하는 지금의 독도를 가리키는 ‘다케시마’가 아니다. 본고에서는 ‘죽도’라고 표기하도록 한다.

도쿄(東京)에 소재하고 있는 아오야마도(青山堂)에서 출간했다.⁷⁾ 「서문」은 「메이지 4년(1871) 신미 6월 후지카와 주켄(藤川忠獻)이 썼고, 교서한 사림은 세키시(關思)이고, 책자를 발행한 도쿄서림(東京書琳)의 대표는 가리가네야 세이치(雁金屋清吉)였다.⁸⁾

“미나모토노 하치로(源八郎)는 오키나와(琉球)를 취하고, 미나모토노 쿠로(源九郎)는 홋카이도(蝦夷)를 복속시켰다. 이들이 원주민을 포로로 잡아 멸망시켜 개화시켰으나 우리나라 판도로 복속시키는데 도쿠가와(德川)씨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가 이를 개탄하여 예전에 홋카이도로 가서 산천을 그리고 좋은 토지를 측량하여 저서로 남겼기에 개척사를 설치할 수 있었다.(중략) 훗날에, 우리나라가 조선과 이 섬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다. 어찌 작다고 해서 이 둘을 불문에 부칠 수 있을까? 아아 위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책을 읽고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두 명의 미나모토(源)의 공적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내가 출판을 하여 권한다.”⁹⁾

이상의 죽도잡지 「서문」을 통해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영토팽창 측면에서 보면 중세시대의 미나모토 정권은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복속시키고 원주민을 멸망시켰다. 그런데 근세 도쿠가와 정권은 영토 확장에 소극적이었다. 둘째, 마쓰우라 다케시로가 홋카이도를 측량하여 지도를 그려서 책자를 발간하여 개척을 선동함으로써 홋카이도에 개척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셋째, 조정이 홋카이도를 개척하였는데, 마쓰우라 다케시로의 공로가 지대했다. 넷째, 마쓰우라 다케시로는 다케시마가 작은 섬이지만,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죽도잡지』를 저술했다. 다섯째, 훗날에 조선과 다케시마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에 쓸모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누가 이 다케시마를 개척하면 그 공로는 엄청날 것이다. 일곱째, 『죽도잡지』의 서문을 쓴 사람은 「메이지 4년(1871) 신미 6월 후지카와 주켄이고, 세키시가 교서」를 했다. 여덟째, 『죽도잡지』의 저술 목적은 일본의 영토가 아닌 이웃나라의 영토인 다케시마의 개척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7) 『죽도잡지(竹島雜誌)』

8)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1, p.50.

9)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49-50.

2.2 집필동기와 내용의 신뢰도

『죽도잡지』의 범례는 마쓰우라 다케시로히로시(松浦竹四郎弘)가 메이지 3(1870) 경오년, 중추 윤 3월 도쿄 히비야(日比谷) 바카쿠사이(馬角齋)에서 작성했다.¹⁰⁾ 『죽도잡지』의 「범례」에 집필동기와 내용의 신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바이고, 요즘 식자들이 그 일(지리)에 대해 마음을 쓰고 있는 덕일까, 앉아서도 런던의 변화함, 파리의 아름다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고, 수만리 바다 건너에 있는 곳의 흥망성쇠나 동란도 그 달 안에 알게 된다.(중략)

-. 그러나 그 참고문헌이라는 것이, 원래 어부나 사냥꾼의 말을 기록한 것일 뿐이므로, 조잡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원래 도킨야(陶金屋)가 쓴 『북해수필』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씨가 쓴 『삼국통람』의 저본이 된 것인데, (『삼국통람』의 내용도) 그 당시의(조잡한) 이야기(가 근거)이다. 독자가 가벼이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¹¹⁾

이상에서 『죽도잡지』의 집필동기와 내용의 신뢰도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필 동기는 지리를 알아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울릉도의 지리를 책으로 집필한 것이다. 세계의 근대화(태평성대) 덕분에 일본에서도 해외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울릉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근대화의 덕분이다. 둘째, 일본열도 주변의 다른 섬에 관해서는 정보를 알고 왕래하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죽도에 관한 지리적 정보가 없어서 『죽도잡지』를 집필했다는 것이다. 셋째, 『죽도잡지』는 필자의 상상력을 꾸민 것이 아니고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집필한 것이다. 내용이 조잡한 것은 참고문헌상의 문제이다.

넷째, 참고문헌 자체가 사냥꾼과 어부의 말을 기록하였기에 조잡한 것이지만, 저명한 학자들이 저술한 책들도 그 조잡한 참고문헌을 토대로 작성하였기에 정확하지 않다. 『죽도잡지』가 다소 조잡하더라도 필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다섯째, 『죽도잡지』는 마쓰우라 다케시로 아베히로시(松浦竹四郎阿部弘)가 편집했다. 저술할 때 참고로 활용한 문헌은 『일본풍토기』 『일본여지로정도』 『현존육첩』 『회중초』 『동애수필』 『초로잡담』 『수서』 『대청일통도』 『복사』 『백기민담』 『죽도도설』 『태평연표』, 가나모리 겐사쿠(金

10)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1.

11)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0-51.

森建索)의 필기, 소 쓰시마노카미 요시카쓰(宗對馬守義攻), 조베(長兵衛)의 다케시마 이야기”등이다.¹²⁾ 셋째, ‘다케시마’에 대한 지견은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다양한 서적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서 직접 도항하여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3. 섬의 명칭과 가치, 지리적 위치

울릉도의 명칭과 지리적 위치에 관해서는 한국 측에서는 신라시대의 우산국과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했고, 또한 거리적으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였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의 형성에 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¹³⁾ 그러나 그에 관한 기록은 없다. 한국측에서 울릉도의 상세정보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수토사들이 남긴 지도이다.¹⁴⁾ 일본에서는 오야, 무라카와 가문 어부들이 울릉도 도항했을 때에 남긴 기록이다. 본서는 그 내용들이 전해져서 이렇게 기록되었다.

마쓰우라 다케시로는 『죽도잡지』의 「총설」에 죽도의 명칭과 지리적 위치, 섬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他計甚麼 (일본풍토기) 또는 竹島라고 쓰는 것은 이 섬에 대죽 숲(동쪽 해안 오사카포구에 있다)이 있고, 그 대나무 중 가장 큰 것은 둘레가 2척 정도가 되는 것도 있어 (『죽도도설』) 그렇게 부르는 것일 것이다. 또 촉라국(舳羅國)(『수서』) 등의 명칭이 있다.(중략)

조선에서 가자면 부산포에서 이 섬까지는 80리, 밤이 되어 그 나라의 민가에서 밝히는 불빛이 분명히 보인다고 한다. 도해했던 적이 있던 선원들이 한 말이다(『백기민담』). 생각건대 이는 잘못된 말이다.¹⁵⁾ 산악과 계곡 사이에 대죽(大竹)과 교목(喬木)이

12) 전게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1-52.

13) 한국측의 자료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부터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고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라고 하는 울릉도에 대해 영토인식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 시대에 있어서 울릉도의 지리나 산물에 관해 기록한 서적은 없다. 사실 일본측에서도 『죽도잡지』 같은 경우, 내용은 17세기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이 울릉도 왕래 시에 조사한 산물에 관해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의 집필연도는 1870년도이다.

14) 조선 수토사들이 남긴 지도와 내용. 최장근(2014) 『독도 한국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p.11-159.

15) 권오엽, 오오니시 주석(2009) 『독도의 원초기록 원록각서』 제이앤씨, p. 59. “죽도와 조선사이는 30리, 죽도와 송도사이는 50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성하고, 섬 안에 금수가 많이 살고, 어류와 패류가 해안가에 깔려있어 산물이 충분한 섬이라고 한다(『백기민담』).”¹⁶⁾

이상의 내용으로 죽도의 명칭과 지리적 위치, 섬의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다케시마라는 명칭은 동쪽 오사카포구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큰 것은 둘레가 2척이나 된다. 그래서 이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했다. 둘째, ‘축라도’라는 말이 있는데, 다케시마를 축라도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지만, 쓰쿠시 앞바다의 잇키 섬 혹은 대마도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지금의 다케시마는 아니다. 셋째, 여러 서적에서나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다케시마까지의 거리에 대해 여러 가지 언급하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이 섬에서 밤에 부산포 민가의 불이 보인다고 하니, 이 섬은 일본에서보다 조선에서 더 가깝다. 넷째, 「일본여지로정도」나 『대청일통도』에 의하면 ‘다케시마’¹⁷⁾는 북위 37도 50분에서 38도에 걸쳐 있다. 다섯째, 다케시마는 “오키노쿠니(隱岐國) 마쓰시마(松島)의 서도에서 바닷길 약 40리 정도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마쓰시마(松島)를 오키노쿠니(隱岐國) 소속으로 언급하고 있다. 여섯째, 저술 연도에 대해 “마쓰우라 다케시로 히로시(松浦竹四郎弘)는 메이지3(1870) 경오년, 중추 윤 3월 도쿄 히비야(日比谷) 바카쿠사이(馬角齋)에서 『죽도잡지』를 저술했다.”고 하므로 마쓰우라 다케시로 히로시가 『죽도도설』을 인용하여 1870년경에 저술한 것이다.¹⁸⁾ 일곱째, 다케시마는 그 지형은 삼각형이고 둘레는 약 16리 정도, 산악과 계곡 사이에는 대나무와 교목이 무성하고, 산물이 매우 많은 진귀한 섬이다. 산에는 금수, 해안가에는 어류와 패류가 풍부하다.

4. 일인의 울릉도 도해와 도항금지

4.1 두 가문의 도해면허 취득경위

오야, 무라가와 두 가문은 울릉도에 표류된 적이 있어서 울릉도가 무인도이

16)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2-54.

17) 여기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18) 1870년 일본외무성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등 ‘울진현 정동 앞 바다에 “우산도, 울릉도” 2섬이 존재하고 이섬은 날씨가 청명할 때 서로 잘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 산물이 풍부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취득하여 1620년대부터 1696년 안용복사건으로 도항이 금지될 때까지 70여년간 울릉도에 도해했다. 안용복사건으로 조일 양국 간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막부는 쓰시마번¹⁹⁾와 돛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의 소속을 조사하고 결과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하고 면허를 허가한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시켰다. 「죽도잡지」에서도 오야, 무라가와 두 가문의 도해면허의 취득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또 이 섬이 쓰쿠시노쿠니의 다케시마(『복사』 「왜국전」)라 하여 우리나라의 섬이라고 한(『초로잡담』) 것은, 하쿠슈 요나고의 주민 오야와 무라카와 두 가문은 대대로 명망 있는 주민으로 자손은 지금까지도 마치도시요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받은 것은, 이 지역(당국/호키노쿠니)의 전 태수인 나카무라 호키노카미 다다가즈(『백기민담』)가 게이초(慶長) 14년(1609)에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영지) 상속이 단절되었다. (중략)

이 후 8, 9년이 지나 두 상인 중 한 명만을 불러 격년으로 어업을 하게 되었는데, 후에 74년이 지나, 겐로쿠 5년 임진년(1695)²⁰⁾에 도해하였더니 조선인이 무리지어 어로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듣지 않아 위험하였으므로 분하지만 그냥 돌아왔다(『백기민담』).”²¹⁾

이상의 오야, 무라가와 두 가문의 도해면허의 취득 경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야, 무라가와 두 가문은 다케시마를 ‘쓰쿠시로구니’ 즉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오야와 무라카와 두 가문은 하쿠슈 요나고의 주민으로서 대대로 명망 있는 가문의 자손이고, 두 가문은 지금까지도 마치도시요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하쿠슈는 1609년 태수였던 나카무라 호키노카미 다다가즈가 죽고 상속자인 자식이 없어서 1616년 막부의 영지가 되었다. 넷째, 매년 막부로부터 온 시로다이가 성에 머물면서 하쿠슈를 지배했다. 1616년 아베 시로고로가 시로다이로 와있을 때 두 가문이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신청했다. 1617년 마쓰다이라 신타로 미쓰마사가 하쿠슈의 영주로서 배령받

19) 대마번의 조사에서는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조선인들의 도해를 금지할 것을 조선정부에 요청했지만, 돛토리번의 조사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20) 사실과 다른 점은 1692년에 조선인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1) 전게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4-55.

아 부임하였다. 그때 두 가문이 다시 청원하여 미쓰마사가 바로 에도에 고하여 도해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매년 쉬지 않고 다케시마로 건너가 어로를 했다.²²⁾ 다섯째, 1618년 두 상인을 에도로 불러서 심문한 후 신타로 미쓰마사 영주에게 주인선을 주었다. 1618년부터 막부의 쇼군을 배알하여 시복을 받고 전복을 상납했다. 여섯째, 1618년 이후 8,9년이 지난 후부터 74년 동안 한 가문씩 격년으로 불러 어업을 하게 되었다.²³⁾ 일곱째, 1695년에는 다케시마에서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어로를 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조선인들의 어로를 막지 못하고 분한 마음으로 귀향했다는 것이다.

4.2 일인의 조선인 조우

안용복 일행은 1692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조우했다.²⁴⁾ 그리고 이듬해 1693년에 다시 일본인들을 만났고, 안용복은 일본인들을 꾸짖었는데, 오히려 무장한 일본인들에게 납치당하여 일본으로 끌려갔다.²⁵⁾ 무장한 납치 일본어부들의 대우와는 달리,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안용복 일행을 극진하게 대우했고, 나가사키와 대마도를 거쳐 송환되었다.²⁶⁾ 「죽도잡지」에도 안용복의 1차 도일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죽도도설』에, 겐로쿠 5년(1695) 봄 2월 19일에 예년과 같이 요나고를 떠나 오키노쿠니 후쿠우라(福浦)에 도착하였고, 같은 해 3월²⁷⁾ 24일 후쿠우라를 떠나 26일 아침 5시에 다케시마의 ‘이카 섬(イカ島)’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이 때 처음으로 이방인이 어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로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인 27일 우리 배가 다케시마의 ‘하마다포구’로 가던 중에 외국 배 두 척을 보았다. 단, 한 척은 사람이 타지 않았고 한 척은 바다에 떠있었는데 외국인 30인 정도가 이 배에 타고 있었다.(중략) 이것은 이번 도해의 증거로 삼기 위한 것이다. 4월 1일 세키슈 하마다로 돌아와, 운슈를 경유하여 4월 5일 7시에 하쿠슈의 요나고에 도착하였다. 「생각컨데 여기에서 겐나(1615~1624) 때라고 했으나 겐로쿠(1688~1704) 때일 것이다. 이에 여기에 주(注)를 달았다.”²⁸⁾

22) 사실과 다른 점은 1620년 이후에 면허를 받았다는 연구가 있다.

23) 도해면허를 받고 8,9년이 지난 후에 도항을 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실이다.

24) 경상북도편(2013) 『죽도기사(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1, pp.14-21.

25) 권오엽 편주(2010) 『일본고문서의 독도, 控帳』 책사랑, pp.16-30.

26) 상동.

27) 일본어부가 울릉도에서 처음으로 조선인을 만난 것은 1692년 기록이 타당하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1695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이 조선인과 조우한 사실」에 관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울릉도 도항에 관한 내용은 『죽도도설』에 의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 「겐로쿠 5년(1695) 봄 2월 19일에 예년과 같이 요나고를 떠나 오키노쿠니 후쿠우라에 도착하였고, 같은 해 3월 24일 후쿠우라를 떠나 26일 아침 5시에 다케시마의 ‘이카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라고 하여 요나고 사람이 3월말에 울릉도에 도항하는데, 오키섬의 후쿠우라에서 5일²⁹⁾을 대기했다가, 2박2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셋째, 겐로쿠 5년(1695) 3월 26일에 울릉도에 도착하여 이전에 본적이 없는 이방인을 처음으로 보았는데 어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2척의 배를 발견했는데, 한척에 30여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 60명의 조선인이 울릉도에 도항했다는 것일까? 다섯째, 일본인들은 하마다포구에 정박을 하는데, 조선인들은 오사카포구에 정박하고 가와덴가와라라는 사람은 일본말을 잘 하는 통사였다. 여섯째, 「이 섬의 북쪽에 섬 하나가 있는데 좋은 전복이 매우 많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선국 왕의 명을 받아 삼 년에 한 번씩 그 섬에 간다. 올해도 역시 그 섬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큰 바람을 만나 뜻하지 않게 이 섬 (다케시마)으로 밀려왔다」라는 내용을 보면, 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에 나오는 「우산도」와 「울릉도」를 연상케 한다. 조선국의 명령을 받아 3년에 한번씩 울릉도에 갔다고 돌아오면서 「우산도」에 표류했다는 주장이다. 일본인들과 다투는 것을 우려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해에 2섬의 영토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이 다케시마는 옛날부터 일본인이 전복을 따왔던 곳이다. 즉시 떠나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길, “큰 바람을 만나 배가 모두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고 난 후에 떠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급히 떠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분쟁을 우려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은 1차도일 이후 대마도주가 계속해서 울릉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차 도일로서 「조울양도감세장」이라는 직함을 사칭하고 관복을 입고 스스로 울릉도-독도를 거쳐 일본에 도항했다. 『죽도잡지』에 안용복의 2번째 도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8)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5-56.

29) 내용상으로 볼 때, 5일인지, 35일인지 분명하지 않다.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음 해 「겐로쿠 6년(1696)」에 도해하였는데, 많은 조선인(唐人)이 와서 가옥을 세우고 마음대로 어럽을 하고 있었다. 이 때 두 사람이 계책을 내서 조선인 두 사람을 데리고 요나고로 돌아왔고,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2시 반경 나다초(灘町)의 오야 구로우에몬(大谷九郎右衛門) 집에 두고, 두 사람이 섬에 대한 것과 두 사람의 조선인을 데리고 귀향한 것을 태수에게 말하여 결국에는 에도에서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다(『백기민담』). (중략) 같은 달 18일 다케시마를 떠나 같은 달 28일 요나고로 돌아왔고, 그 일에 대해 영주 「마쓰다이로 호키노카미(松平伯耆守)」에게 호소하였다. 영주 역시 이 일을 간조부교(勘定奉行)인 마쓰다이로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에게 보고하였다.”³⁰⁾

위의 안용복 2번째 도일에 관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내용은 『백기민담』과 『죽도도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둘째, 1696년 「봄 2월 하순에 다시 요나고를 떠나 여름 4월 17일 오후 2시경에 다케시마에 도착하였다.」 1695년에 이어 1696년에도 도항했는데, 많은 조선인들이 가옥을 만들고 마음대로 어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조선인들이 어럽을 하며 우리를 방해했는데, 자칫하면 옥을 퍼붓곤 해서 분위기가 험상궂었기에」 일본인 「두 사람이 계책을 내서 조선인 두 사람³¹⁾을 데리고 요나고로 돌아왔다」. 넷째, 귀향 경로와 머물렀던 곳에 관해 「같은 달 18일 다케시마를 떠나 같은 달 28일 요나고로 돌아왔고,」, 「1696년 4월 27일 오후 2시 반경 나다초의 오야 구로우에몬 집에 두고」에서 조선인 2사람은 오야 구로우에몬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그 일에 대해 영주 “마쓰다이로 호키노카미”에게 호소하였다. 영주 역시 이 일을 간조부교인 마쓰다이로 미노노카미에게 보고하였다.」, 「두 사람이 섬에 대한 것과 두 사람의 조선인을 데리고 귀향한 것을 태수에게 말하여 결국에는 에도에서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막부와 조선정부가 울릉도 쟁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섯째, 『백기민담』과 『죽도도설』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정확도에 대해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서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된다.

4.3 울릉도 도항금지령

안용복은 일본의 관공서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했고, 결국은

30)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 56-57.

31) 『죽도도설』의 「그 중 대표자 한 명과 동료 두 세명」은 오류.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시켰다. 『죽도잡지』에는 울릉도 도항금지령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에 막부가 명을 내려 그 사람들을 에도로 불러 그 일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때,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도해 시기는 다르지 않은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 그 사람들이 답하길, “우리들은 매년 봄 3월경에 도해하여, 7월 상순에 귀향할 때 어림 배나 도구를 오두막에 간수해 두면, 틀림없이 그 다음해 도해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작년 겐로쿠 5년(1695)부터 (조선인이) 오두막을 열고 마음대로 도구를 빼앗고 태연히 거주하고 있는 모양을 보아, 반드시 이때에 조선인이 처음으로 다케시마를 찾아낸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해 어림을 하기 어렵다는 탄원을 구구절절이 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중략) 요시자네가 귀국한 후 같은 해 10월 조선의 통역과 만나서 말할 때 위와 같은 명령이 있었음을 전달하여, 이에 논쟁이 종료되기에 이르렀다.”³²⁾

막부의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도항 금지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겐로쿠 5년(1695)부터」라고 한 것으로 보아 1696년에 「막부가 명을 내려 그 사람들을 에도로 불러 그 일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라고 하여 그 사람들 오야, 무라가와 가문의 울릉도 도항인들이다. 둘째, 「이에 막부가 명을 내려 그 사람들을 에도로 불러 그 일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때,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도해 시기는 다르지 않은가”」라고 하여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모두 울릉도에 도향한 것은 아닌가하고 확인하려고 했다. 셋째, 「그 사람들이 답하길, “우리들은 매년 봄 3월경에 도해하여 7월 상순에 귀향할 때 어림 배나 도구를 오두막에 간수해 두면, 틀림없이 그 다음해 도해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여 조선인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넷째, 「작년 겐로쿠 5년(1695)³³⁾부터 (조선인이) 오두막을 열고 마음대로 도구를 빼앗고 태연히 거주하고 있는 모양을 보아, 반드시 이때에 조선인이 처음으로 다케시마를 찾아낸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다섯째, 「이 일로 인해 어림을 하기 어렵다는 탄원을 구구절절이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32) 진게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7-58.

33) 1692년에 처음으로 만났고, 1693년에 1차적으로 양국 어민들이 부딪치게 되어 조선인을 일본에 납치했고, 1696년 조선인이 스스로 2차로 일본에 도항했다. 따라서 본서의 연도는 오류로 판단.

하는 것으로 조선인들 때문에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백기민담』에 의하면, 「같은 해 오야와 무라카와가 데리고 온 조선인 두 사람이 요나고에서 돛토리로 올 때, 가노 고자에몬, 오제키 추베 두 무사가 영주의 명을 받아(그들을) 데리고 돛토리로 왔다.»는 것이다. 일곱째, 『초로잡담』에 의하면, 「3년이 지난 겐로쿠9 병자년(1699)³⁴⁾ 조선으로부터 다케시마가 조선의 섬이라는 말을 해 와서 다케시마를 조선에 주었다고도 한다」라는 것이다. 열덟째, 『죽도도설』에 의하면, 「이전에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인(因), 하쿠(伯) 양 주(州)의 영주였을 때 여쭙어 하쿠슈 요나고 주민 무라카와 이치베와 오야 진키치가 지금까지 다케시마에서 어업을 해 왔는데, 향후에는 입도를 금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으니 그 뜻을 받들라.」 「이리하여 그 달 담당 ‘정월 28일’ 노중 도다 야마시로노카미님이 봉서를 내렸다고 한다.» 아홉째, 「겐로쿠 9년(1696)에 이나바노쿠니와 조선국 사이에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을 두고 두 나라가 분쟁하는 것처럼 되어 좋지 않으니, 조선 사람이 이 섬에 오는 것은 금한다는 장군의 명이 계셨다」³⁵⁾는 것이다. 열째, 「금년 정월 28일에 요시자네가 쓰시마로 돌아갈 때, (가로가 요시자네에게) 다케시마에 일본인이 가는 것은 무익하니 정지시키라는 명령을 영주 (돛토리번)에게 내렸다고 하여서, 요시자네가 귀국한 후 같은 해 10월 조선의 통역과 만나서 말할 때 위와 같은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다,

4.4 울릉도 도항 탄원과 섬 조사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고 난후 두 가문의 어민들이 울릉도 재도항의 탄원이 있었다는 선행연구는 없었다. 「죽도잡지」에는 오야, 무라카와가문이 막부로부터 도항금지령이 내려지고 난후 직접 에도를 방문하여 재도항을 위한 탄원을 했고, 또 막부가 1724년에 울릉도를 조사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다.³⁶⁾ 울릉도 도항 탄원과 울릉도를 조사한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4) 도항금지령은 1696년인데, 사실의 오류.

35) 안용복의 진술과 반대이다. 어느 쪽인 진실인가는 논증이 필요.

36) 1726년 쓰시마번에서 『죽도기사(2)』를 저술했다. 경상북도편(2013) 『죽도기사(2)』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2, p.256.

“이에 대한 꽤 많은 서류가 있으나 얻지 못하였고, 단지 이 두 통은 소 쓰시마노카미 요시카쓰(宗對馬守義功)로부터 나온 가보에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게재하였다. 이제 그 때로부터 3년이 지난 겐로쿠 11년(1699) 축년 가을에 요나고 주민 무라카와 이치베가 에도에 가서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다(『죽도도설』). (중략)

교호 9년(1724) 갑진년, 에도에서 인슈(因州)의 영주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단 요나고는 아라오 다지마(荒尾但馬)의 영지이므로 그에게 명하여 이를 (다케시마 관련 건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 때 그 (아라오 다지마) 가 이 두 상인이 올린 서류를 필사했고 다유(大夫) 이케다 분고노카미(池田豊後守)가 (이것을) 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한다.“³⁷⁾

상기의 울릉도 제도항을 위한 탄원과 막부가 울릉도를 조사한 내용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에 대한 꽤 많은 서류가 있으나 얻지 못하였고, 단지 이 두 통은 소 쓰시마노카미 요시카쓰로부터 나온 가보에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게재하였다.」 둘째, 「그 때로부터 3년이 지난 겐로쿠 11년(1699) 축년 가을에 요나고 주민 무라카와 이치베가 에도에 가서 탄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27년이 지나 생각건대, 관청에 무라카와와 오야 두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 청원서에 첨부한 것일 것이다.」 넷째,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말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섯째, 「교호 9년(1724) 갑진년, 에도에서 인슈의 영주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단 요나고는 아라오 다지마의 영지이므로 그에게 명하여 이를 (다케시마 관련 건을) 조사하였다.」 여섯째, 「그 때 그 (아라오 다지마)가 이 두 상인이 올린 서류를 필사했고 다유(大夫) 이케다 분고노카미가 (이것을) 관청에 제출하였다.」 일곱째, 이상의 내용은 『죽도도설』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울릉도와 풍토와 산물

5.1 울릉도의 풍토

일본의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의 어부들이 70여 년간 울릉도에 도항했다. 그런데 이들이 울릉도에 도항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선행연구는 없었

37)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8-58.

다. 대략적으로 어업과 벌목을 위해 도향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는 울릉도의 풍물과 산물에 관한 연구도 없다. 「죽도잡지」에는 울릉도의 풍물과 산물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섬은, 하쿠슈 아이미군(會見郡) 하마노매(浜野目) 산류무라(三柳村)에서 오키의 고토(後島)까지 35, 6리 정도 된다. 이 눈짐작으로 (오키에서) 조선의 산을 보면 약 40리 정도라고 생각된다. (중략) 또 남쪽으로 가서 바위 곳을 돈다. (작은 해변이 나온다) 이 주변의 땅은 평평하여 나무가 많고 또 대숲이 이어져 있다. 또 바위 곳 하나를 돌면 (남동쪽[辰]) 협곡이 있다. (이 협곡 깊이는 2, 5정(町)인데, 일설에는 20정[町]이라고 한다. 동남쪽[卯辰]으로 향해있다.) 앞에 섬이 있다. (높이는 20간[間], 둘레 5간[間], 주변에 암초가 많다고 한다. 꼭대기에 소나무가 있다고 한다.) 또 바위 곳 하나를 돌면 그 ‘오사카포구(大阪浦)’로 나온다. (조베(長兵衛)의 다케시마 이야기)”³⁸⁾

이상의 울릉도의 풍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베의 다케시마 이야기」를 토대로 울릉도의 지형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어부 「조베는 세키슈 하마다에서 나서 나중에 비젠으로 가서 오카야마의 오하라마치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다.」 둘째, 울릉도의 거리는 「하쿠슈 아이미군 하마노매 산류무라에서 오키의 고토까지 35, 6리 정도이고, 오키에서 눈짐작으로 조선의 산인 울릉도까지 약 40리 정도라고 한다. 셋째, 울릉도를 외곽에서 돌면서 「오사카 포구 — 하마다 포구 — 다케 포구 — 모토지마 — 오지마 — 기타구니 포구 — 야나기 포구 — 섬 중 제일 큰 섬(죽도-필자주) — 산본바시 — 히가시 포구 — 오사카포구」에 관해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다. 넷째, 「야나기포구」는 「이 곳에서 보면 조선 땅이 잘 보이고, 조선인도 이곳을 목표로 온다고 한다. 조금 산으로 들어간 곳에 인가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조선인이 살던 흔적이라고 한다.」 라고 하여 조선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라고 하여 울릉도에 조선인의 문화가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5.2 울릉도의 산물

울릉도는 다케시마라고 할 정도로 대나무가 많다. 그리고 아릅드리 소나무가 많아서 그 소나무를 일본으로 반출하여 절 등 건축물을 지었다는 말도 있다.

38) 전게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59-61.

또한 산삼을 채취하여 일본으로 반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울릉도의 산물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는 없다. 「죽도잡지」에는 울릉도의 산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섬은 전체적으로 험산준령이 많고 나무가 무성하며 또 여기저기에 폭포가 있고 동쪽에 해당하는 곳에는 기이한 샘물 하나가 있다고 한다. 그 물이 맑고 맛은 달다. 하루에 겨우 1승(升) 정도의 샘물이 난다(『백기민담』).(중략)

다케시마 담화, 제비 같은 것이 있는데 모두 암굴에 서식한다. 아침 6시에 암굴을 떠나 그날 해질 무렵 돌아온다. 암굴이 둥지이다. 사람들이 한밤중에 굴을 찾아내어 잡기도 한다. 깃털은 재색이고 제비같이 생겼다. 배도 하얗다. 어부들이 구멍새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말이 전해져 온다. ‘다케포구(竹の浦)’의 서쪽 암굴과 그 주변에 많다고 한다.”³⁹⁾

이상의 울릉도 산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나무가 무성하고 험준한데, 20여개의 폭포가 있고 동쪽에 맛이 단 기이한 샘물이 하나 있다. 둘째로, 울릉도는 대나무를 해안가에 넣어두면 버섯처럼 붙어있을 정도로 전복이 많고, 꼬리 굽은 다케시마 고양이가 서식한다. 셋째로, “쥐, 종달새, 찌르레기, 검은 방울새, 시지우카라, 갈매기, 가마우지, 노지코, 제비, 독수리, 뿔매, 매, 구멍새”등이 서식한다. 넷째로, 구멍새는 어부들이 명명한 이름이고, 암굴에서 사는데 밤에 잠자리 들어온다. 밤에 사람들이 암굴에 가서 이를 잡는다. ‘다케포구’의 서쪽 암굴과 그 주변에 많다. 특히 울릉도 산물 중에서도 「해로(海鱸)」에 관해서는 한층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 담화, 이 물고기는 비젠(備前)의 히라도(平戸)와 고토(五島)의 바다에 ‘마레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종이다. 그 크기는 작은 개만하고 생김은 메기 같으며 지방이 매우 많다. 털은 희고 육질은 밀납같아, 조선인이 이것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이면 기름이 끓면서 물위로 뜨는데, 이것을 건어내고 다시 물을 부어 끓이면 역시 처음과 같이 되고, 몇 번을 거듭해도 처음과 같다. 이에 만약 어부가 이것을 잡으면 많은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즐겨 잡는다고 한다. 이 물고기는 바람과 파도가 없을 때 해변가에 올라 끈하게 잘 때가 있다고 한다. 그 때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 가서 창으로 찌른다.”⁴⁰⁾

39)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62.

이상의 울릉도의 산물 중에 특히 「해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로는 주로 조선인들이 가마솥에 물을 부어 끓이고 물에 뜬 것을 건어내어 같은 방법을 계속하여 기름을 얻기 위해 잡는다. 당시 울릉도에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잡는 방법은 바람과 파도가 없을 때 해변가에서 잠자고 있을 바람 부는 반대방향에서 창으로 찔러 잡는다. 셋째, “조선인이 이것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라는 것으로 보아, 당시 오야, 무라가와 두 가문이 내왕했던 17세기에 울릉도에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⁴¹⁾

또한 울릉도의 식물과 광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삼 결향 하계사쿠라 선단목 다케시마 담화, 주단, 흑단이 모두 있다. 열매 모양은 치자나무와 비슷하다. 황벽 다이다라(오리나무와 같고, 가래나무 비슷하다) 동백나무 솔송나무 느티나무 대죽 호랑가시나무(일본의 것과 다르다) 오동나무 감탕나무 수유 마늘(익은 옥잠화 잎처럼 생겼다) 대신 소산 관동 양하 땅두릅 백합 우영 딸기, 이타도리 등이다. 또 광물로서는 진사·녹청 등에 속하는 것도 있고, 인삼·전복·해로 세 품목이 가장 많다고 한다. (중략) 그러면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약용 식물도 적지 않고, 바다에는 전복이 있고, 해로가 있다고 한다. 또 물고기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⁴²⁾

이상의 울릉도의 식물과 광물에 관한 기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들이 있어서 가장 선호했던 울릉도 산물은 ‘인삼, 전복, 해로’였다. 둘째, 요나고 어부들이 오직 갖고 온 것은 ‘인삼, 전복, 해로’뿐이었고, 나머지 식물은 일본에도 있는 것으로 그다지 진귀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광물로는 진사, 녹청 등이 있었다. 넷째, 「원래(이 섬이) 우리나라 영역이었던 것은 의심할 바 없고」라는 것으로, 울릉도가 원래 일본영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다섯째, 「해안에는 배를 댈 만한 곳이 많고」라고 하는 것처럼, 울릉도를 바다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많은 배가 오갈 수 있는 섬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올바른 인식은 아니었다. 여섯째, 산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엄청 많이 자라고 「진사와 녹청」도 있고, 인삼이 많이 난다. 일곱째, 땅에는 약용식물,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 전복과 해로가 있다.

40)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 62-63.

41) 삼한시대 78개국 중의 하나로서 우산국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연구로 볼 때, 울릉도는 조선인의 문화가 존재한 곳이다. 강봉원(2013) 「울릉도 고분에 관한 일고찰」, 『동아시아의 바다와 섬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역사 -독도를 중심으로-』 지성인, pp.123-160.

42)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63-64.

이상과 같은 내용의 『죽도잡지』를 집필한 저자의 목적은 「도쿄 히비야의 바카쿠사이에서 붓을 놓다.」 「다케시마 잡지 끝」이라고 적은 집필 후기를 보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마음은 오키의 풍랑에, 어찌 견뎌내는가 다케시마는.」 「이와 같은 땅인데 개척자가 아직까지 이를 황도(荒島)에 비하고 있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⁴³⁾라고 하는 것처럼, 비옥한 울릉도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준 마쓰우라 히로시」가 아래와 같이 『죽도잡지』의 후기를 적어 「도쿄서림의 가리가네야 신키치(鴈金屋信吉)」가 「메이지 4년(1871) 신미년 겨울 10월에 조판에 착수」하여 발행했다.

“영원불변의 마쓰우라의 색채를 입은 다케시로(多氣志樓)⁴⁴⁾ 당신은, 내 어릴 적부터의 동무로서, 오래 전 안세 때(1855~1860)의 초기에 미치노쿠(陸奥)의 에조(蝦夷)의 지시마(千島)의 섬 입구인 하코다테(봉행소) 임무를 명받아, 일찌감치 길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의지하는 친구가 된, 허물없고 절친한 당신이여. 에조의 희미하게 보이는 섬들, 미치노쿠의 그 어디까지고, (중략) 이것을 마음에 두고 땅 끝까지, 당신이 갈 때를 정한 것은, 에조의 경계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세상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말하자면 필요이상인 되니, 정성껏 글로 써서, 이렇게 나타내고, 부디 오래도록 세상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 것이 되게 하려는,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생각에 잠기니, 에조에 대해 알고 있는 자 외에는, 아직 당신에 대해 모를 것이다. 애당초 당신이란 사람이 어느 곳의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가미카제(神風)의 이세노쿠니(伊勢國), 잇시노코오리(壹志郡), 효요(瓢像)의 구모즈노사토(雲津里), 그곳에서 출생하여 이름을 얻은, 스루가노쿠니(駿河國)가, 도쿄의 임시 거처에서 쓰다.”⁴⁵⁾

이상의 「도쿄서림(東京書林) 가리가네야 신키치(雁金屋信吉)(발행)」가 쓴 후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의 후기는 발행인 도쿄서림 사장인 가리가네야 신키치가 쓴 것으로 이 책의 저자인 「마쓰우라 다케시로」의 어릴 적 친구였다. 둘째, 다케시로는 안세 때(1855~1860) 초기, 미치노쿠의 에조의 지시마(千島)의 섬 입구인 하코다테(봉행소) 임무를 명받아 부임했다. 그 이전에 많은 저서를 남겼다. 셋째, 다케시로는 하코다테에 떠나기 전에 많은 저서를 남겼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었다. 넷째, 마쓰우라는 에조에 대해서도 상세한 저서를 남겼지만, 다케시마에 대해서도 「죽

43)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64.

44) 다케시로의 호.

45) 전개서,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pp.64-65.

도잡지」라는 상세한 저서를 남겼다. 다섯째, 에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마쓰우라를 알고 있지만, 마쓰우라가 다케시마를 비롯해서 일본이 확장해야하는 영토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여섯째, 이처럼 진귀한 울릉도를 황무지로 생각하여 개척하려는 자가 없어서 개탄스럽다는 것이다.

6. 맺으면서

본 연구는 ‘19세기 중엽, 『죽도잡지』로 보는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인식’이라는 주제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고찰했다. 연구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도잡지』에서는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선과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죽도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죽도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에 관해서도 본인이 상상력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죽도관련 도서와 관련자료, 그리고 견문록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둘째, 죽도의 명칭에 관해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 이소다케시마’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울릉도’라고 한다고 하고 있고, 울릉도까지 일본과 조선에서의 거리에 대해서도 현재적 관점으로 보면 정확한 거리인식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보다 조선에서 더 가깝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셋째,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이 울릉도에 도항하게 된 목적을 알 수 있는 울릉도의 풍토와 산물에 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일본인 두 가문이 울릉도에 도해했으나, 그 목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죽도잡지』에서 울릉도 산물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도해 목적에 관해 더 상세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죽도잡지』에 기록된 내용은 전혀 엉뚱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우 정확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에 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소재임에는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죽도잡지』는 울릉도에 관한 기록으로서 독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이유는 울릉도를 도항하는 과정에 독도를 경유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증거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원(2013) 「울릉도 고분에 관한 일고찰」, 『동아시아의 바다와 섬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역사 -독도를 중심으로-』 지성인, pp.123-160.
- 경상북도편(2014) 『독도관계일본고문서(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1, pp.49-77.
- _____ (2013) 『죽도기사(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1, p.39.
- _____ (2013) 『죽도기사(2)』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2, p.256.
- 권오엽, 오오니시 주석(2009) 『독도의 원초기록 원록각서』 제이앤씨, p.59.
- _____ 편주(2010) 『일본고문서의 독도, 控帳』 책사랑, pp.68-229.
- 다케우치 다케시, 송휘영, 김수희 역(2013)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선인, p.19.
- 송휘영 엮음(2013) 『일본학자가 보는 독도의 역사적 연원』 지성인, pp.161-205.
- 오오니시 도시테로, 권정 역(2011) 『독도개관』 인문사, pp.421-442.
- 정영미역(2010) 『竹島考 상·하』 경상북도·안용복재단, p.125.
- 최장근(2014) 『독도 한국고유영토론』 제이앤씨, p.11-159.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 古今書院, pp.139-193.
-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pp.33-39.
- _____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親書377, pp. 43-92.
- 内藤正中·金柄烈(2007) 『歴史的検証独島·竹島』 岩波書店, pp. 8-61.
- _____ ·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歴史から考える—』 新幹社, pp. 53-79.
- 「竹島問題」(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
(검색일: 2012.1.30).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要旨 >

19世紀半ば、『竹島雑誌』から見る日本人の鬱陵島・獨島の認識

崔長根

本研究では、17世紀に鬱陵島を渡航していた大谷、村川兩家が当地で確認した情報が後世に伝わってから、19世紀半ばにそれらの記録が編纂されてできた『竹島雑誌』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これにより、当時の日本人の鬱陵島と獨島に関する認識を検討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まず、『竹島雑誌』では、該当の島々で日本にはない多くの産物が生産されたため、日本の領土として擴張すると、國益に資させんとする目的の達成を促したという点が挙げられる。第二に、竹島は距離的には、日本よりも朝鮮に近いが、日本人が幕府から渡海免許の発行を受け70年以上渡海してたため、事実上はむしろ朝鮮の領土というより、ほぼ日本の領土に近か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である。ところが、江戸幕府は、領土意識の不徹底さ故か、竹島を朝鮮の領土であると認めてしまった。鬱陵島に往來していた大谷、村川兩家は幕府の決定を不服とし、直接江戸に行って鬱陵島に渡航できるように嘆願した。第三に、獨島に関する内容はほとんどない。それにもかかわらず、現在の日本政府が獨島領有権に關し言及してくるのは、鬱陵島への渡航過程で獨島を経由したが故である。従って島を経由したことをもって、それが領土として確保されたとする主張には無理がある。

Ulleungdo and Dokdo perceptions of Japanese with 『Jukdo magazine』 the mid-19th century

Choi, Jang-Keun

This is the study on Ulleungdo Island researched two households of Japan in the 17th century. It was called the 『Jukdo Magazine』 study. 『Jukdo magazine』 recorded information confirmed and handed down on Ulleung Island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e work analysed 『Jukdo Magazine』. I wish the review which at the time the Japanese tried to recognition Ulleungdo and Dokdo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purpose of 『Jukdo Magazine』 written to extend as Japanese territory on Ulleungdo Island because there are many products which are not produced in Japan. Second, Jukdo is near by the Joseon Dynasty rather than Japan. But the Japanese thought Ulleungdo Island is Japanese territory because Japanese went to Ulleungdo Island to take license from Tokugawa for 70 years. The status of Ulleung island by lack of territory by the Tokugawa became Joseon's territory. two families of Oya and Murakawa went to Edo against the decision of the Tokugawa for a voyage again. Third, 『Jukdo magazine』 is evident of Dokdo territory because Ulleung Island in the same vicinity as Dokdo.